



### 누구든 오만하지 말라는 것이 대선 민심이다

김 윤 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칼럼

3월 9일(수)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20일이 되었다. 정치가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지만, 5년 간 국민의 삶과 국가 명운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 결과에 대하여 모두가 나름의 생각과 소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후보가 싫지만 상대방 후보는 더욱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역대 최악의 비(非)호감 선거,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와 아들 등 가족 리스크가 큰 선거,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 당일에도 거대 양당 두 후보들이 부인과 함께 나타나지 못했던 선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국회의원으로 장관도 해 보지 않은 정치 번두리, 아웃사이더 출신이다. 전례없는 희한한 대통령 선거 모습이었다. 저렇게 반칙과 특권, 불법의 의혹을 받고도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바라본 국민들은 무력감과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에 빠질까 두렵다.

여기에 투표 결과는 더욱 놀라운 역사적인 신기록이 나왔다. 투표율 77.1%, 투표자 34,067,853명에서 윤 후보가 48.56%를 득표해서 47.83%를 득표한 이 후보를 0.73%, 24만 7077표라는 대통령 선거 사상 최소 표차로 당선되었다. '갯잎 한 장 차이'라고 한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 치른 이번 대선 투표율은 2000년대 이후 5번의 대선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19대 대선(77.2%)과 거의 비슷하다. 무효표(30만7542표)보다 적은 1, 2위 후보 간의 24만 7077표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까. 선거운동 기간의 열정과 흥분을 가라 앉히고 차분히 되새겨보는 일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겨울의 강추위 속에서 20여 회의 촛불집회의 혁명정신으로 절대적인 국민 지지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조국사태 등 내로남불과 위선, 오만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정권교체 여론이 50%를 상회하는 구조적인 악조건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개인기(個人技)로 악전고투하여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 후보는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흐름을 역류(逆流)하여 필사적으로 올라가는 한 마리 물고기 같았다. 윤 후보가 가족을 포함하여 도덕적으로 조금만 흠(欠)이 적었다면 이번 대선은 게임도 되지 않는 싱거운 게임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부인 등 가족 리스크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을 수도 있다.

1987년 6월, 피 흘린 민중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 노태우·김영삼 보수정권 10년,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 10년,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을 거쳐오면서 정권교체 10년 주기설(週期說)이 나올기도 했다. 국민은 주기설을 깨버렸다.

민주당은 억울해 할 일이 아니고, 후보와 정당 지지율에서 계속 크게 밀리

다가 초박빙의 승부를 만들어서 체면을 세워준 국민에게 크게 감사해야 한다. 그 동안의 잘못과 내로남불에 대하여 의례적인 비상대책위원회만 꾸려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국민 앞에 처절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진심으로 석고대죄(席藁待罪)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잘 했거나 후보가 좋아서 찍어준 것이 아니고, 상대당과 후보가 너무 싫으니까 찍어주었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한다. 투표 당일 개표 초반에는 계속 지다가 밤 12시 넘어서서 역전하기 시작해서, 별주부전(甕主簿傳)에서 토끼가 용궁에 갔다가 간신히 살아온 형국이었다. 이겨도 이슬이슬한 표차로 간신히 이기게 해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투표 다음날, 당선이 확정된 3월 10일, 윤 후보가 당선 소감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36번 말한 것은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후보와 24만 7077표 차이를 달리 표현하면, 윤 후보 득표에서 12만 4천표만 이 후보를 찍었다면 이 후보가 승자가 될 수 있다. 3천4백만여 명의 투표자 가운데, 24만 표, 12만4천표는 패자 측에서는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적은 숫자다. 정책 같은 거대공약 보다는 후보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핵심 참모진의 언행 하나에 민심의 파도가 출렁거렸다.

막장드라마 같은 한국 대선,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게임은 끝나고 승패도 갈렸지만, 국민은 분열과 대립으로 두 편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 이제 두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주문(呪文)처럼 입에 달고 다녔던 '국민 통합'이 최대 숙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민주당도 국민 통합, 코로나 극복, 청년·여성·노인 등 정책 강화, 지역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정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약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절박한 명령과 도도한 시대 흐름을 소홀히 하거나 역행하면, '내가 권력을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여러 번 맛본 우리 국민들은 5년 후, 또는 5년이 되기 전에 거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다.

인간은 남 보다 무엇을 조금 더 가졌거나 조금 더 잘하면 자칫 오만(傲慢)해지기 쉬운 동물이다. 승자가 큰 표 차이로 이겼다면 오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역대 최소 표차로 정권을 맡겼다. 패자는 잘못이 많기에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 좌절하지 말라고 역대 최소 표차로 심판했다. 그러나 큰 표차로 지지 안했다고 오만해지기 쉽다. 20대 대선 민심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오만하지 말라는 국민의 절묘하고 강력한 경고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현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 학교폭력! 이제는

기고

### 로그아웃 해야할 때

백 록담 보성경찰서 별교파출소 순경



"내가 이거 퍼뜨려버린다", "이 단체톡방 나가면 알아서 해라". 중학생 a양은 같은학교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괴롭힘은 메신저에서도 계속되어 단체방에도 강제로 초대돼 매일매일 욕을 들어야 했다.

이렇게 신체적 폭력으로 많은 문제가 되었던 학교폭력 시대에 흐름에 따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이버 불링이라는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가 모바일메신저, SNS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이다.

사이버 불링은 단체 채팅방에 피해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을 하거나 굴욕적 사진을 공개하는 때가, 괴롭힘을 피해 채팅방을 나간 학생을 계속 초대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카톡감옥, 단체채팅방에 초대안된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나가버리는 방폭 등 이런 유형의 다양한 방법이 생기고 있고, 다른 지능적인 방법으로도 진화 하는 중이다. 사이버불링의 최대 약점은 종전의 학교폭력과 다르게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24시간 내내 피해 학생에게 노출 되는 것이다.

사이버 불링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바일가디언, 스쿨보안관, 클래스팅 117chat 등 사이버 불링에 대해 상담하는 어플도 많이 있어 피해학생에게 접근성을 높여 주는 방법 또한 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117에 알릴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어렵다면 #0117에 문자로도 가능하길 알려줘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경찰과 상담하고 싶다면 117chat 메신저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이버불링 초기 단계에 도움을 주면 피해 학생이 받는 심리적 부담이 덜 할 것이다. 해마다 많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나오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형이 많이 변화해왔으며,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 경찰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먼트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화재예방을 위한 선택 '주택용 소방시설'

기고

#### 안 형 민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코로나19로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요즘 기본적인 손씻기부터 예방접종까지 초기에 얼마나 대처하느냐에 따라 예방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화재의 예방 또한 다를 바 없다. 화재 초기를 어떻게 대처함에 따라 나와 우리 가족 더 나아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인 '소화기'를 말한다.

먼저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방사해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진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와 작동돼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돕는다.

실제로 지난 1, 2월 무안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



하여 주민이 대피하고 신속히 소방서에서 출동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로 화재를 예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7년 2월 1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나 법 시행 미인지, 안전불감증 등으로 아직 많은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가족을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최고의 소방관이자 우리 집 안전지킴이인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구비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 잃는 일이 없기를 기도한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